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5째주 셀가족모임)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4: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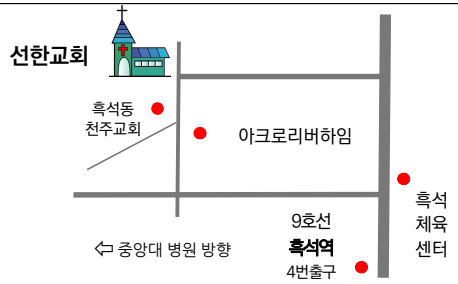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외선교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에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 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스이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천사항 기도의 삶 / 거룩 / 사랑의 삶 / 선교사의 삶

삶의 방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1

기독교 한국침례회 선한교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전 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양과경배	80장 (통일찬송가 101장)
교 독 문	교독문 21 (시편 34편)
찬양과경배	449장 (통일찬송가 377장)
대표기도	조계승 장로
말씀봉독	**마태복음 5장 3 ~ 12절**
설 교	**박해를 받은자의 복** (임춘배 목사)
환영 및 광고	인도자
파송의노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도의교제	다함께

수요 예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방법 (롬15:1-13) 임춘배 목사

한주간의 기도제목

모든 삶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세상을 사랑하며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쁨의 찬양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걸어가기를

교회소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 안내

1. 주일예배: 2부(9시30분/11시)로 나누어 드림
   (11시 예배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림
   (영상제공하지 않음)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 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 앞으로도 일독한 사람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일독 기념품 증정).
4. 경건서적읽기 5.부서별 카톡 성경공부

3. 성경통독 및 암송시상

1. 시상 일시 : 6월 14일 주일 1/2부 예배 시
2. 시상 방식 : 본당 예배 참석자는 본당에서 목사님께서 직접 수여
   (다른 분들은 사무국 김진만 전도사께 수령)
3. 시상자 명단 :
   - 성경1독
     김미숙, 유신웅, 류은영, 심지숙, 김계순, 김점분, 오인숙, 박영근, 조윤익(9명)
   - 부분 통독(신약)
     최윤정, 이태수, 신영문, 오세영, 백영미, 김지형, 허정미, 최은주, 정영옥, 이용재, 장수정, 이지인, 이예인(13명)
   - 성경 암송
     서창덕, 이소영, 박영근, 류은영, 이하연, 조예은, 조하은, 신영문, 송혜영, 백다현, 조계승, 유영은, 최성규(13명)

4.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기도합시다.
2. 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3. 코로나 19 확진자들의 완치와 빠른 백신 개발을 위해 기도합시다.
4.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회개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5. 코로나 19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6. 코로나 19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5. 김요한·임주형 결혼예배

일시: 6월 20일 토요일 12시
장소: 베라카 채플웨딩(CTS 기독교 TV 2층)
※ 교회에서 11시에 차량이 출발합니다.

6. 떡제공

조윤익 오세일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가정예배

주님을 신뢰하는 삶

찬송 :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통 470)
본문 : 잠언 16장 4절
말씀 : 은혜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당 문밖으로 나간 직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들, 모순된 세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되던 일도 안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득세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한 삶을 보니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나의 신앙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더 안 풀리는가. 왜 일이 더 꼬이는가. 그런데 저들은 어찌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가. 내가 이렇게 손해 보며 아파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아실까.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날 때 회의감이 몰려옵니다. 이런 우리에게 잠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비빔밥 재료를 하나씩 따로 먹어보면 그리 맛이 없습니다. 밥과 나물, 참기름을 넣어 비벼 먹으면 그저 밍밍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추장을 적당히 넣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고추장을 적당하게 넣으면 맛있게 비빔밥을 먹습니다. 싫지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도 사용하시고 악도 사용하십니다. 기쁨도 쓰시고 슬픔도 쓰십니다. 인생 최고의 요리사이신 하나님은 적절히 선과 악을 식재료로 사용하시어 맛있는 인생 비빔밥을 만드십니다. 성경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표현합니다.
악한 왕 사울이 있었기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고추장같이 매운 광야의 맛을 10년을 봐야 했습니다. 청양고추같이 악한 왕 사울에게 쫓겨 살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다윗을 살렸습니다. 그 과정이 다윗을 다윗 되게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 포로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후반부의 극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장엄한 출애굽의 서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하고 모순된 과정을 그분의 완벽한 레시피에 맞게 적당히 사용하셨습니다. 악한 일도,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악인도 하나님의 큰 '비빔밥 양푼이' 안에 사용되는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모순된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수용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이라 믿어 보십시오. 그러면 불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고 원망하며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분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최고의 비빔밥 인생으로 만드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박해를 받은자의 복 (마5:3-12)**
서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행하며 살아야 행복합니다.
본론	1. 박해를 받은 자 (1) 8복은 천국에서 시작하여 천국으로 끝남 (2) 8째복이 가장 큰 복: '복이 있나니' 두 번 언급(10,11절) (3) 박해는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10-12절) (4) '의를 위하는 일': ①옳은 일 ②신앙지킴 ③말씀대로 살아감 ④복음전도 (5) 박해를 받은 자의 복: ①'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10절) ②'하늘의 상이 큼이라'(12절) 2. 교훈 (1) 나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가? (2) 박해를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3) 팔복을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있는가?
결론	박해를 받은 자가 되어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Q.T.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날짜 : 6월 15일

찬양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본문	신명기 31:9-18
	자신의 최후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모세는(참조, 신 3:23-29)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강하고 담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입성할 때 전술이나 전략 면에서는 가나안 종족보다 열세라고 할지라도 과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부수었던 것을 기억하고 담대이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 어떠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모세는 지금까지 신명기의 설교를 해 오면서 계속 말하던 율법에 대해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모세는 율법을 책으로 써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주면서 그들이 초막절과 같은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그들 가운데 거하는 외국인들에게까지 율법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마감되어 갈 때 백성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이 내정된 여호수아를 불러오게 하여 모세의 후계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 나가실 것입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기억해야 할 노래

찬양과 기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새 200/통 235)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조지 맥도널드(1824~1905)는 현대 판타지 문학 분야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반지의 제왕」을 쓴 J. R. R. 톨킨, 「나니아 연대기」를 쓴 C. S. 루이스 등 수많은 작가에게 영향을 주었고, C. S. 루이스는 그를 스승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가에게 태어나 목사가 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목회직을 내려놓고 작가로 활동하면서 많은 시와 소설과 설교집을 남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29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Our God is a consuming Fire)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상대의 사랑스러움이 불완전하여 한껏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은 상대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고자 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야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완전함에 이르고자 노력하되 그 자신도 사랑의 대상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힘씁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 안에 있는 아름답지 않은 모든 것, 사랑을 가로막고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은 파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허물과 죄 된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도록 지금도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때론 이러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고통과 슬픔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당신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말씀 나누기	신명기 31:19~29
묵상포인트	하나님은 미래에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반역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셔서 구원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 율법의 교훈을 상기할 수 있도록 노래를 지어 백성에게 가르치게 하십니다. 곡조 있는 노래로 배운 내용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입에 가까이 두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 본성은 죄의 길로 행하기 쉽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노래로 가르쳐 믿음을 전수했듯, 성도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의무과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모세에게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명하시나요?(19~21절)
적용하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떠났다가 돌이키는 계기가 된 말씀이나 찬양, 혹은 체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제 허물과 죄를 아시고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넘어질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속히 일어나며, 저를 회복시킨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날짜 : 6월 19일

찬양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오
본문	신명기 32:37-52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 주고 가르쳐서 명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노래를 가르쳐 경계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래의 내용에 대해서 이상히 여길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노래의 내용은 이스라엘에게 허망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것, 즉 심판 후에 회복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미 예고한 대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임을 하나님은 다시금 선언하십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느보 산에 올라 가나안을 바라보고는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므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행동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 역시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묵상질문	1.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던 적이 있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은혜를 노래하라**	날짜 : 6월 16일

찬양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본문	신명기 31:19-29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함께 부르신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사 결국 재앙과 환난으로 인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불행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행위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반드시 징벌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래 모습에 대해 예고하신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에게 증거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노래가 이스라엘에 불려지고 대를 이어 전수되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그 노래가 증거가 되어 증인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노래의 내용을 들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계기이든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모세는 이 노래를 당일에 곧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잘 교육하라고 지도자들에게 부탁한 모세는 긴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합니다. 이 노래는 모세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로 작용하여 이스라엘 스스로가 부패하게 될 때에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과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의 상황에서도 기록했던 것처럼(참조, 출19), 힛타이트의 조약 문서의 형식을 빌려 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확고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그 조약의 마지막 부분에 증인을 채택하는 부분으로 모세는 천지를 증인으로 제시하여 전약의 확고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바로 이 노래가 가지는 특징으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유지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묵상질문	1. 나에게 영향을 준 노래나 찬양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날짜 : 6월 17일

찬양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본문	신명기 31:30-32:14
	율법의 말씀을 설교한 모세는 그 말씀을 모두 적어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율법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로 삼으며 율법 지키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이 율법이야말로 신명기를 설교한 모세가 가장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복은 물론 민족의 장래를 축복으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중시하라고 거듭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광야 40년의 세월을 돌아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과도 같이 이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늘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들을 지으셨다는 말씀은 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있으며 유지될 수 있었던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 한 순간도 관심을 돌려 본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배반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한 순간도 줄어든 적이 없었던 역사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진정 자신들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잘못을 통해 자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태도는 성도들로 하여 금 힘을 얻게도 합니다. 곧 자신의 생애 가운데 역사한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해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질문	1. 내가 가진 하나님과의 추억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불순종의 결과**	날짜 : 6월 18일

찬양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본문	신명기 32:15-36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께 패역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을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역사를 보아도 시내 산밑에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특징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기본 적인 심성을 말해 줍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일반적인 은총도 깨닫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서 자신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늘날 형상을 갖춘 이방 신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돈, 섹스, 권력, 과학 기술 등이 모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배신감은 점점 더 깊어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배교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방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격노하시며 질투를 일으키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마침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엄중한 형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이 세상 어느 곳, 심지어 지옥 깊은 곳까지라도 사를 것이라고 모세는 노래합니다. 또한 진노의 화살을 모두 다 쏘아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심판에는 백발노인부터 젖먹이까지 예외가 없을 것을 보면 그 심판의 심각성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전에, 최소한 경고가 정점에 이르기 전에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의 경고를 체험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